2021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22.3.28,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 목 차 ~

Ⅰ. 글로벌 PF 시장 동향

1. 글로벌 PF(대출 및 채권) 시장
2. 글로벌 PF 대출 시장
3. 글로벌 PF 채권 시장
4. 국제개발금융기관의 PF 지원

Ⅱ. 결론 및 시사점

※별첨: 유럽 지역 주요 국가별 건설 금융 Issue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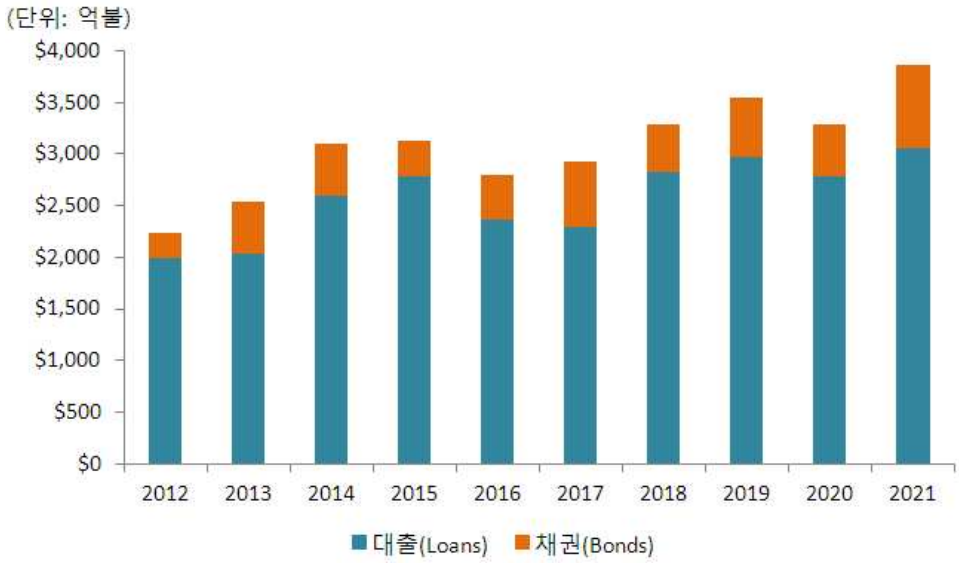
Ⅰ. 글로벌 PF 시장 동향

1. 글로벌 PF(대출 및 채권) 시장

◦ 2021년 전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및 채권) 시장은 약 3,856억불의 규모를 기록하며 2020년(3,290억불) 대비 17.2% 증가함과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던 2019년 3,543억불의 기록을 경신함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1)

◦ 2021년이 되어 유동성이 늘어나고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수익률 추구가 지속되면서 PF 시장이 활기를 띰. ESG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규제 속에서도 거래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방법을 터득한 모습을 보임

- 최근 10년 글로벌 PF 시장 규모 추이 -



*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12-2021

2. 글로벌 PF 대출 시장

◦ Loans 시장의 규모는 약 3,059억불로 전년(2,776억불) 대비 10% 증가했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901건에서 918건으로 17건 증가함

◦ (주간사별) 2021년 대출을 주선한 금융기관 중 1위는 2020년과 동일한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SMBC)이었음

- 2021년 주간사별 Loans League Table -

순위	회사	금액 (억불)	비중	건수	전년도 순위
1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159.5	5.2%	160	1
2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142.7	4.7%	149	2
3	Societe Generale	119.3	3.9%	130	3
4	Credit Agricole CIB	101.6	3.3%	123	5
5	Santander 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101.4	3.3%	125	4
6	Mizuho Financial Group	99.8	3.3%	73	7
7	ING	89.8	2.9%	106	9
8	BNP Paribas	88.0	2.9%	97	6
9	Natixis	83.4	2.7%	77	8
10	CIBC World Markets	58.0	1.9%	59	11
11	Gazprombank	54.9	1.8%	13	37
12	Sberbank CIB	49.7	1.6%	8	174
13	Bank of China Ltd	49.0	1.6%	41	18
14	IMI - Intesa Sanpaolo	42.5	1.4%	50	29
15	**Korea Development Bank**	**41.6**	**1.4%**	**28**	**12**
16	Standard Chartered	41.4	1.4%	34	19
17	National Australia Bank	41.1	1.3%	47	23
18	JP Morgan	40.6	1.3%	22	50
19	HSBC Holdings	39.0	1.3%	30	15
20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36.3	1.2%	36	21

*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0, 2021

- 한국산업은행은 약 41.6억불(28건)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40.8억불, 24건)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주선했고 전체 Loans 시장의 점유율은 1.4%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순위는 3계단 하락한 15위에 랭크됨

- 러시아 은행인 Sberbank CIB는 2020년 92.2백만불(3건)을 주선하는데 그쳤으나 2021년은 북극 LNG 개발사업 등 러시아 대형 프로젝트들의 힘을 받아 대출 주선 규모가 49.7억불(8건)로 50배 이상 커지면서 순위가 174위에서 12위로 대폭 상승함

- 상위 5위권은 미세한 순위 변동만 있을 뿐 전년과 주선 규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지역별) EMEA지역이 전년대비 거래 금액이 18% 가까이 증가하며 1,481.6억불로 전체 프로젝트 Loans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미주 지역 또한 8.5% 이상의 대출 거래 증가를 보임.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은 거래 규모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감소폭이 크지는 않았음. 전반적으로 Loans 시장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지역별 Loans 전년대비 비교 Table -

지역	2021년		2020년		금액 증감률 (%)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유럽·중동·아프리카 (EMEA)	**1,481.6**	**48.4%**	1,256.4	45.3%	17.9↑
미주 (Americas)	**959.4**	**31.4%**	883.4	31.8%	8.6↑
아시아·태평양 (Asia Pacific)	**617.6**	**20.2%**	636.3	22.9%	-2.9↓
합계	**3,058.6**	**100**	2,776.1	100	10.2↑

*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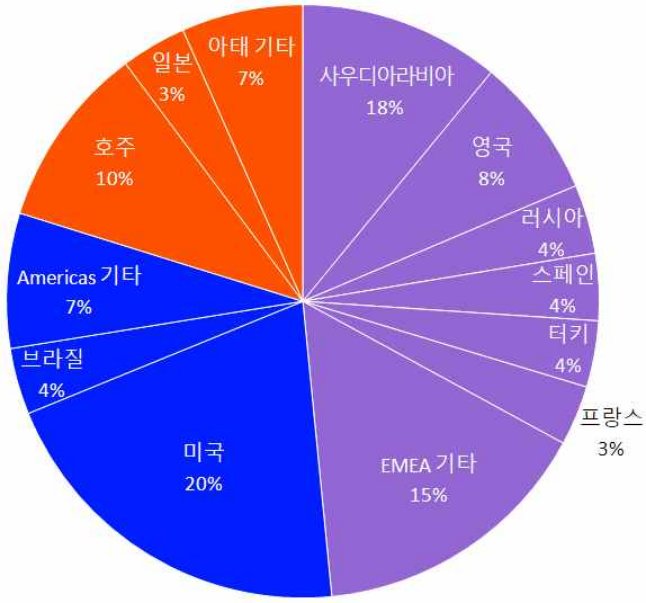
- (EMEA) 2019년부터 매년 거래 건수는 350건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나 2021년에 유독 대출 금액이 큰 증가를 보인 이유는 사우디 때문임. 사우디에서는 Jazan 정유공장 시설 인수, Sadara 정유공장 리파이낸싱, EIG Pearl 파이프라인 거래 등이 큰 규모로 진행되었음. 앞으로도 사우디에서는 여러 건의 신재생에너지 및 PPP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고, 친환경 신도시 Neom에서 첫 대형 수소 거래 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EMEA지역 Loans 활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주)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용 연방 세금 인센티브 및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됨. 미국에서는 626억불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

지면서 미국이 2021년 가장 거래가 많았던 단일국가로 기록됨

- (아태) 거래는 약 620억불로 전년대비 3% 감소에 그쳤으나, 코로나19 사태 이전 규모인 800-900억불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음. 일본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요를 많이 보여 아태지역 Loans의 25% 이상을 일본계 은행이 주간하면서 일본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출을 발생시킴

- 2021년 주요 국가별 Project Loans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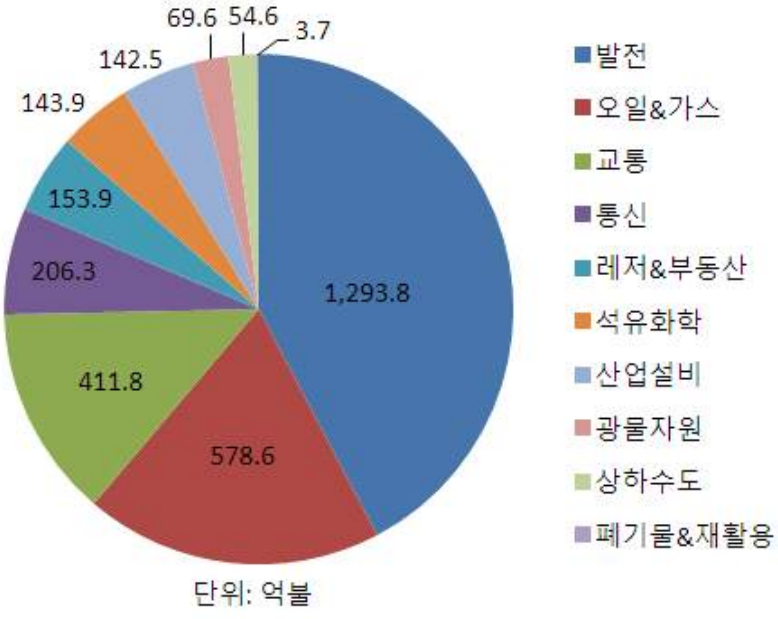
*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1

◦ (공종별) 발전이 1,293.8억불(42.3%), 오일&가스가 578.6억불(18.9%), 교통이 411.8억불(13.5%)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으며, 그 외 통신(6.7%), 레저&부동산(5.0%) 등의 규모가 컸음

- 발전 부문 Loans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해당 부문에서의 비중이 2020년 72.4%에서 2021년 68.3%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보여줌

- 광섬유 통신망과 디지털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신 부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해지고 있어 향후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공종별 Project Loans 규모 -



*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1

- 2021년 공종별 Project Loans 전년대비 비교 Table -

공종	2021년		2020년		금액 증감률 (%)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발전	**1,293.8**	**42.3**	1,327.6	47.8	-2.5 ↓
오일&가스	**578.6**	**18.9**	642.4	23.1	-9.9 ↓
교통	**411.8**	**13.5**	340.6	12.3	20.9 ↑
통신	**206.3**	**6.7**	130.4	4.7	58.2 ↑
레저&부동산	**153.9**	**5.0**	43.8	1.6	251.4 ↑
석유화학	**143.9**	**4.7**	52.4	1.9	174.6 ↑
산업설비	**142.5**	**4.7**	106.1	3.8	34.3 ↑
광물자원	**69.6**	**2.3**	63.2	2.3	10.1 ↑
상하수도	**54.6**	**1.8**	33.2	1.2	64.5 ↑
폐기물&재활용	**3.7**	**0.1**	35.9	1.3	-89.7 ↓
농업&임업	-	-	0.5	0.02	-100.0 ↓
합계	**3,058.6**	**100**	2,776.1	100	10.2 ↑

*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0, 2021

3. 글로벌 PF 채권 시장

◦ Bonds 시장은 798억불로 전년(514억불) 대비 55% 증가함

◦ (주간사별) Loans 주선 규모 22.6억불로 35위에 그친 Citi가 98.5억불의 Bonds를 발행하며 1위를 차지함. Loans 부문 상위 5위 안에 포함된 금융기관 중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Societe Generale, Santander Corp & Investment Bkg은 Bonds 부문에서도 상위 5위내 랭크됨

- 2021년 주간사별 Bonds League Table -

순위	회사 (전년도 순위)	금액 (억불)	비중	건수	전년도 순위
1	Citi	98.5	12.3%	48	2
2	JP Morgan	51.3	6.4%	34	4
3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46.1	5.8%	36	1
4	Societe Generale	39.0	4.9%	19	7
5	Santander Corp & Investment Bkg	33.8	4.2%	31	13
6	HSBC Holdings	33.3	4.2%	17	8
7	BofA Securities	33.2	4.2%	19	10
8	BNP Paribas	32.9	4.1%	17	5
9	Sumitomo Mitsui Finl Grp	31.7	4.0%	25	12
10	Credit Agricole CIB	30.9	3.9%	19	3
11	Mizuho Financial Group	29.0	3.6%	19	14
12	Goldman Sachs	24.7	3.1%	18	9
13	Scotiabank	22.6	2.8%	14	11
14	Credit Suisse	21.1	2.6%	14	21
15	CIBC World Markets Inc	19.1	2.4%	10	18
16	RBC Capital Markets	18.3	2.3%	13	6
17	Morgan Stanley	17.9	2.2%	13	15
18	National Australia Bank	13.8	1.7%	10	32
19	ING	13.4	1.7%	11	22
20	Deutsche Bank	13.0	1.6%	9	9

*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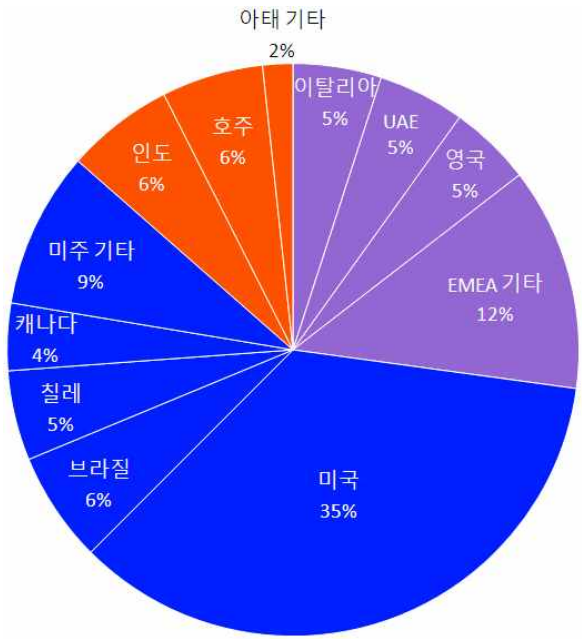
◦ (지역별) 2021년 미주와 아태지역 Bonds 시장은 전년대비 규모가 대폭 증가했으나, EMEA지역은 다소 위축되면서 규모가 미주 시장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2021년 지역별 Bonds 전년대비 비교 Table -

지역	2021년		2020년		금액 증감률 (%)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EMEA	**216.6**	**27.2**	232.6	45.2	-6.9 ↓
미주	**473.0**	**59.3**	242.3	47.1	95.2 ↑
아태	**108.0**	**13.5**	39.4	7.7	174.1 ↑
합계	**797.6**	**100.0**	514.3	100.0	55.1 ↑

*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0, 2021

- 2021년 주요 국가별 Project Bonds 규모 -



*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1

- (EMEA) 2020년 232.6억불에서 6.9% 감소하며 216.6억불을 기록함. 이탈리아가 39.8억불로 EMEA지역에서 채권 발행 규모가 가장 컸으며, UAE는 Galaxy 파이프라인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총 39.2억불로 2020년 40억불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함

- (미주) 전년(242.3억불)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473억불을 형성하면서 글로벌 Bonds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특히 미국이 리파이낸싱과 그린본드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 발행으로 단일국가로는 가장 큰 규모인 282억불을 기록, 전 세계 시장의 35%를 차지하며 미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함

- (아태) 108억불의 규모로 전년(39.4억불) 대비 2.7배 이상 성장하였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Bonds 발행이 적은 편이며, 지역 1위 인도(48.5억불)와 2위 호주(45.8억불)가 아태지역 총 규모의 97% 가까이를 차지했다는 점이 특징적. 인도는 특히 에너지와 인프라 관련 채권 발행이 많았음

◦ (공종별) 오일&가스 부문이 꾸준히 전체 Bonds 시장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유지함. 교통 부문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198.8억불로 발전 부문(195.6억불)을 근소한 차이로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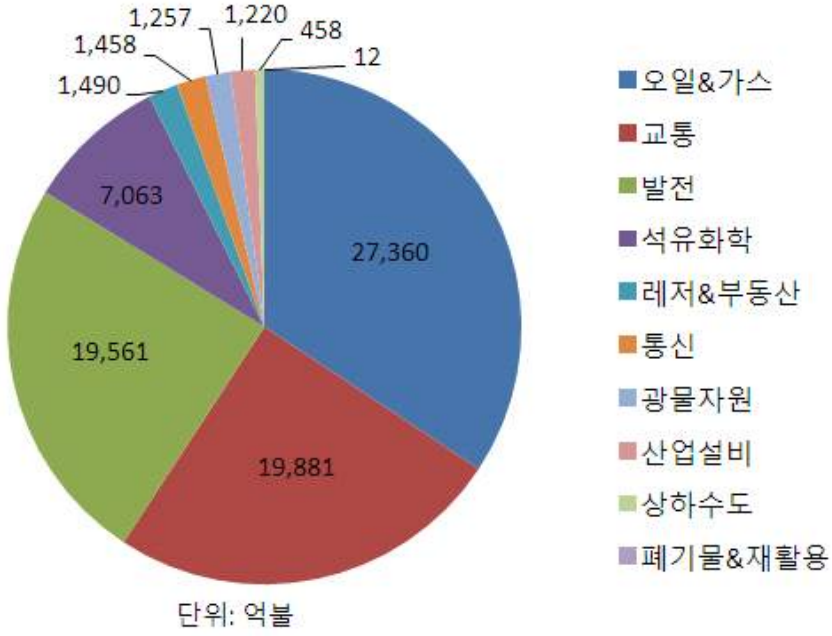
- 2021년 공종별 Bonds 전년대비 비교 Table -

공종	2021년		2020년		금액 증감률 (%)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오일&가스	**273.6**	**34.3**	185.3	36.0	47.7 ↑
교통	**198.8**	**24.9**	86.7	16.8	129.3 ↑
발전	**195.6**	**24.5**	165.5	32.2	18.2 ↑
석유화학	**70.6**	**8.9**	22.4	4.4	215.2 ↑
레저&부동산	**14.9**	**1.9**	24.8	4.8	-39.9 ↓
통신	**14.6**	**1.8**	11.6	2.3	25.9 ↑
광물자원	**12.6**	**1.6**	-	-	-
산업설비	**12.2**	**1.5**	0.6	0.1	1933.3 ↑
상하수도	**4.6**	**0.6**	8.9	1.7	-48.3 ↓
폐기물&재활용	**0.1**	**0.0**	8.6	1.7	-98.8 ↓
합계	**797.6**	**100.0**	514.3	100.0	55.1 ↑

*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0, 2021

- 발전 부문은 공종별 규모 3위에 랭크되었으나 채권 발행 건수가 60건으로 가장 많았음. 산업설비 부문은 전년 대비 20배 넘게 성장했으나 전체 규모는 여전히 작은 편임

- 2021년 공종별 Project Bonds 규모 -



*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1

4. 국제개발금융기관의 PF 지원

◦ 2021년 국제개발금융기관의 PF 지원방식은 총 209.15억불에 직접대출(direct lending)이 78%, 지급보증(guarantee)이 22%를 차지함. 2020년 지원금액(303.52억불)에서 30% 이상 감소하면서 코로나19의 타격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임

- (개도국) 직접대출 115.1억불, 지급보증 44.4억불로 총 159.5억불이 지원됨. JBIC(일본국제협력은행)/Nexi(일본무역보험)가 러시아의 북극 LNG 사업 등에 참여하며 총 41.4억불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금융지원 금액을 기록함. Kexim(한국수출입은행)/K-sure(한국무역보험공사)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29.5억불의 지원

금액이 집계되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2위에 랭크됨

- (선진국) 선진국 대상 지원은 2020년 총 109.71억불에서 반절 이상 감소한 49.7억불을 기록했으며, JBIC/Nexi가 선진국 지원 금액도 가장 많았으나 EIB(유럽투자은행)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오름

- 개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 -

순위	기관명	직접 대출 (억불)	지급 보증 (억불)	총 규모 (억불)	건수
1	JBIC/Nexi	32.14	9.25	41.39	11
2	Kexim/K-sure	9.45	20.00	29.45	3
3	China Exim	14.14	-	14.14	1
4	Sace	5.66	8.11	13.77	2
5	World Bank Group	5.62	4.50	10.12	9
6	IDB Invest	6.18	-	6.18	7
7	Chexim	3.33	-	3.33	1
8	DFC	3.22	-	3.22	4
9	IADB	3.14	-	3.14	2
10	EBRD	2.87	-	2.87	5
11	African Development Bank	2.75	-	2.75	5
12	AIIB	2.73	-	2.73	3
13	Proparco	2.60	-	2.60	3
14	MIGA	0	2.51	2.51	1
15	EIB	2.40	-	2.40	4
16	CAF	2.33	-	2.33	1
17	ADB	1.74	-	1.74	3
18	OFID	1.69	-	1.69	4
19	FMO	1.66	-	1.66	4
20	AFD	1.57	-	1.57	1
21	ICO	1.45	-	1.45	4
22	Sinosure	1.38	-	1.38	1
23	EAIF	1.04	-	1.04	3
24	DEG	0.95	-	0.95	2
25	IsDB	0.75	-	0.75	1
26	EKF	0.73	-	0.73	1
27	DBSA	0.70	-	0.70	2
28	JICA	0.65	-	0.65	2
29	CDC	0.50	-	0.50	1
30	AFC	0.44	-	0.44	1
31	China Co-financing fund for Latin America and Caribbean	0.36	-	0.36	1
32	OeEb	0.32	-	0.32	2
33	KfW	0.02	-	0.02	1
34	AFD	0.58	-	0.58	1
합계		115.09	44.37	159.46	97

- 선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 -

순위	기관명	직접 대출 (억불)	지급 보증 (억불)	총 규모 (억불)	건수
1	JBIC/Nexi	18.46	-	18.46	6
2	EIB	17.16	-	17.16	10
3	GIEK	6.41	-	6.41	1
4	CEFC	3.50	-	3.5	8
5	EKF	0.56	0.98	1.54	2
6	KfW	0.71	-	0.71	1
7	EBRD	0.62	-	0.62	3
8	Euler Hermes	0.50	-	0.5	1
9	ICO	0.47	-	0.47	1
10	AFD	0.32	-	0.32	1
합계		48.71	0.98	49.69	34

*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1

Ⅱ. 결론 및 시사점

◦ **2021년 PF 시장(대출 및 채권)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됨**

- Loans 시장
  · 규모는 2020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상위 주간사들은 전통 강자인 일본계, 프랑스계 은행들이 주를 이루었음
  · EMEA지역은 사우디가 시장을 주도했고, 미주지역은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20%)을 차지했으며, 아태지역은 코로나19 이전 규모(800-900억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공종별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오일&가스, 교통 부문이 꾸준히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통신의 향후 성장이 기대됨

- Bonds 시장
  · 규모는 2020년 대비 큰 폭(55%)으로 증가했으며, 주간사는 미국 및 유럽계 상업은행이 선두권에 주로 포함됨
  · EMEA지역은 채권 발행이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고, 미주지역은 Loans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시장을 이끌었으며, 아태지역은 인도와 호주가 해당 지역의 약 97%를 차지함
  · 공종별로는 교통 부문의 거래가 크게 증가하며 오일&가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Bonds 발행을 기록했고, 발전 부문이 뒤따랐음

- 국제개발금융기관의 PF 지원
  ·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2020년 지원 규모 대비 30% 이상 감소함
  · 개도국 지원은 일본과 한국의 ECA(공적수출신용기관)가 개도국 지원 전체 규모의 45% 가까이를 차지했고, 선진국 지원은 일본의 JBIC/Nexi와 함께 EIB(유럽투자은행)가 지원 규모의 70%이상을 차지함

◦ **ESG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주 지속 증가 전망**

- 지난해 11월 폐막한 COP26를 전후로 탄소중립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강해지면서 ESG경영을 정착시키고 미래 전략으로 삼는 기업들이 많아짐

- PF 시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ESG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금융기관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국제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소형 지역은행들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음[1)]
- 특히 주요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정착한 태양광과 풍력 부문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외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 관련 프로젝트의 비중도 날로 커지고 있음
- 이외에도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EU Taxonomy(녹색분류체계) 규정안을 발의하면서 EU회원국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또는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음. 엄밀한 의미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아니나 탈탄소로 가는 전환기에 ESG 기준을 준수하는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나라별로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데이터센터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활발한 프로젝트 전개 예상**

- 코로나19 이전부터 여러 기업들이 클라우드 활용을 늘리면서 주목을 받던 데이터센터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락다운을 경험하면서 일반 가구의 의존도도 함께 높아짐
- 실제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데이터센터 PF 대출 규모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1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전문가들은 이 증가 추세가 향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2)]

1) PFI. 2022.1.26. 2022 - Robust challenges
2) PFI. 2022.3.9. Data centres into infra mainstream

- 연도별 데이터센터 PF Loans 규모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규모(억불)	6.8	16.1	41.2	12.5	40.8

* 출처: PFI

- 기업 활동이 밀집된 곳 가까이 위치해야 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아직은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연결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흥국에서도 시간차를 두고 데이터센터 구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사들은 ICT업체, 관련 기술 전문가 등과의 업무 협력을 동반하여 수주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데이터 보안,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안정성, 기술적 정교함 등 다방면으로 세심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진입 허들이 다소 있으나, 기업의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주요 축이 될 것으로 보임

별첨. 유럽 지역 주요 국가별 건설 금융 Issue Focus

1. 프랑스

◦ (**중국과 17억불의 인프라 프로젝트 7건 협력 합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두 나라의 제3시장 협력 협약에 따라 총 17억불이 넘는 규모의 7개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3국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함[3)]

- (세부내용) 두 나라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유럽, 동유럽 지역에서 인프라, 환경보호, 에너지 부문의 건설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

- (시사점) 지원을 받게 될 국가와 각 프로젝트의 규모 등 세부 정보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와 중국 두 국가의 후속 발표 내용을 확인하며 진입 여부 검토 필요

2. 독일

◦ (**노르웨이와 연결되는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검토**)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일은 노르웨이와 직접 연결되는 수소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검토하고 있음[4)]

- (세부내용) 독일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절반, 석탄의 절반, 원유의 약 30%는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상황.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작업 중 하나로 노르웨이에서 독일로 그린수소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곧 진행될 예정임을 독일 경제부장관과 노르웨이 총리가 회담을 통해 밝힘

- (시사점) 러시아를 대신할 에너지 공급처의 확보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독일이 더욱 강조하면서 에너지 수입 및 보관 관련 인프라에 대한 신규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3) Global Construction Review. 2022.2.21. France, China team up on infrastructure projects worth $1.7bn
4) Bloomberg. 2022.3.17. German weighs Norway hydrogen pipeline to avoid Russian energy

3. 영국

◦ (**벨기에와 에너지협력에 관한 MoU 체결**) 두 나라는 해상풍력, 저탄소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현재 양국을 연결하고 있는 해저 전력 인터커넥터 Nemo-Link에 이어 두 번째 인터커넥터를 건설하기로 합의함. 벨기에 에너지장관은 북해에 구축 예정인 인공 에너지섬에 새 인터커넥터가 연결되어 두 나라가 전력을 직접 주고받고, 신규 풍력발전단지의 추가 연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5)]

- (현재 영국이 진행 중인 인터커넥터 프로젝트 2건) 영국과 독일이 최초로 연결될 인터커넥터 NeuConnect(1.4GW, 12억유로 규모)는 3월초 이탈리아 케이블회사 Prysmian이 사업을 낙찰받음. 아일랜드와 웨일즈를 연결할 Greenlink(500MW, 6억유로 규모)는 향후 몇 주내 부채차입(debt financing) 세부내용을 확정지을 계획. 두 프로젝트 다 Societe Generale이 금융자문기관 역할을 맡고 있음

- (시사점) 지난겨울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대란을 겪고 러시아 공급을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영국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에너지 연결망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됨. 인공 에너지섬과 이를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춘 우리 건설사들도 참여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포르투갈

◦ (**자국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입찰 개시 예정**) 포르투갈 환경·에너지전환부 Fernandes 장관은 2026년 3-4GW 용량 구축을 목표로 올여름 포르투갈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최초로 경매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힘[6)]

- (추가내용) Fernandes 장관은 포르투갈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주요

5) PFI. 2022.3.9. UK signs energy island MoU
6) Reuters. 2022.3.16. Portugal to auction 3-4GW of floating offshore wind farms in summer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함

- (EU 해상풍력 현황) EU는 현재 1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이 설치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최소 60GW 설치 목표를 갖고 있음

- (시사점) 포르투갈은 현재 전력의 6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을 정도로 친환경 발전 비중이 높으며 향후 수출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비전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시장 개척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됨

5. 이탈리아

◦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 환수 계획**)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시행령을 기반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초과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15억유로 규모의 에너지패키지에 환수된 자금을 사용할 예정[7)]

- (상세내용) 환수조치는 20kW를 초과하는 용량의 태양광 및 일부 풍력·수력·지열발전 플랜트에 적용될 예정. 해당 플랜트들은 현재 에너지대란으로 높은 시장 가격을 누리고 있으며, 기존 정부 보조금 혜택도 받고 있음. 조치에 따르면, 에너지가격이 에너지대란 발생 이전의 평균 시장가격을 일정 수준 초과할 시 생산자들은 초과수익을 2022년 말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함[8)]. 단, 의회가 본 시행령을 60일내 승인하지 않을 시 조치의 효력은 상실될 예정

- (시사점)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은 본 조치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어 그대로 시행이 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함. 시행이 될 경우, 22GW의 현 태양광 용량을 2030년까지 51GW 이상으로 키우고자 하는 이탈리아의 태양광 발전 시장을 실제로 위축시킬지,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의 태양광 정책에

7) Reuters. 2022.2.5. Italy plans to raise 1.5 bln euros from green energy clawback
8) PV Tech. 2022.2.3. Italy's solar profit clawback to have 'huge impact' on renewables investment, trade bodies warn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이 확인 필요

6. 헝가리

◦ (**METAR* 지원제도 하 6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 입찰 개시**) 헝가리 에너지관리공단(MEKH)은 총 864GWh 확보를 목표로 6차 METAR 프로그램 입찰 공고를 게재함[9)]

* METAR: 헝가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정책으로 전력 생산자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플랜트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원됨 (2017년 1월 1일 발효)

- (세부내용) MEKH는 20MW-50MW급 플랜트들로부터 총 720GWh를, 5MW-20MW급 플랜트들로부터 총 144GWh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입찰기간은 3월 25-28일)

- (추가정보) 1, 2, 3차 입찰을 통해 헝가리는 524MW 규모의 태양광 용량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으나[10)], 4번째 입찰(135MW의 기 설치된 수력발전 및 바이오매스 시설 지원용)은 11월에 입찰 접수를 받은 뒤 아직 낙찰자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5번째 입찰은 취소되었음

- (시사점) METAR 프로그램의 첫 세 라운드 입찰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입찰은 다소 불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진행 현황을 지속 확인하며 유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7. 덴마크

◦ (**그린수소 위한 12억5천만 덴마크 크라운 지원 결정**) 덴마크 의회는 2030년까지 6GW의 수전해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12억5천만 덴마크 크라운(약 1.85억불) 규모의 국가지원을 합의함[11)]

- (세부내용)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의 생산을 지원하고 그린수소의

9) PFI. 2022.3.8. Hungary – Renewables tender opened
10) PV Magazine. 2022.3.4. Hungary launches fifth renewables auction
11) Reuters. 2022.3.15. Denmark takes first steps towards green hydrogen economy

상업성을 키우는 데 해당 지원금이 사용될 예정이며, 이르면 2023년에 지원금 활용을 위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12)]

- (추가내용)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그린수소 생산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추가 건설에 관한 내용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정치권 협의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암시함

- (시사점) EU 전체의 2030년 수전해 용량 목표가 40GW임을 감안할 때 덴마크가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했음을 알 수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충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특히 덴마크는 해상풍력 강국인 만큼 이 부문의 투자가 더 증대될 것이라 예상되나, 실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신규 진행에 대해서는 덴마크 정부의 추후 발표사항을 지켜보며 대응 필요

8. 그리스

◦ (**4.25억유로 규모 PPP 사업 승인**) 그리스 개발·투자부는 합계 4.25억유로(약 4.65억불)를 4개의 신규 PPP사업 및 1개의 기 승인받은 PPP사업에 투입하기로 함[13)]

- (세부내용) 이번에 승인된 신규 PPP사업은 △Kozani 기술보급센터 및 학교시설(체육시설, 일반건물 등), △Santorini 폐기물처리시스템, △Karditsa 관개시스템, △Messinia 관개시스템이며 자금의 대부분이 여기 사용되고 일부는 Crete대학에 새 원형극장을 짓는 공사의 변경 작업에 사용될 예정임

- (시사점) 그리스 정부는 본 사업들 외 다수의 도로 PPP사업 또한 진행 및 준비하고 있음[14)]. 그리스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진출이 쉽지 않은 시장이나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PPP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참여 기회는 지속해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12) Renewables Now. 2022.3.15. Danish political agreement reached on up to 6GW electrolysis target
13) InfraPPP. 2022.3.16. Greece approves four PPP projects worth EUR425.2million
14) PFI. 2022.1.27. Greece - FA sought for Greece road PPP

9. 리투아니아

◦ (**첫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 디벨로퍼 의견 수렴 예정**) 리투아니아 에너지부는 자국 최초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잠재 디벨로퍼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예정임을 발표함[15)]

- (세부내용) 컨설팅은 4월 18일에 예정되어 있는 잠재 투자자들과의 협의 및 추후 프로젝트 입찰 준비가 목적이며, 송전망과의 연결 등 기술적 이슈, 시공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체 스케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

- (프로젝트 정보) 해당 단지는 최대 700MW 총규모에 8-16MW급 풍력 터빈이 발트해에 43-87개 설치될 예정. 프로젝트 입찰 공고는 2023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2030년에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 매년 2.5-3TWh의 전략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현 리투아니아 전력 수요의 25%에 달하는 수준임[16)]

- (시사점) 리투아니아는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의 4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풍력발전은 현 수준의 2배, 태양광발전은 5배가 증가해야 함[17)]. 이와 관련하여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기술적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프로젝트 초기 기획 단계의 기술 컨설팅부터 참여하여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10. EU

◦ (Principal European Data Center Fund 1.55억유로 모집 성료) 글로벌 투자관리회사인 Principal Global Investors는 유럽지역 데이터센터자산 투자에 사용될 Principal European Data Center Fund가 당초 목표를

15) Offshore Wind. 2022.3.22. Lithuania to Start Consultations with Offshore Wind Developers
16) 4C Offshore. 2022.3.22. Lithuania opens consultations with potential developers
17) Enerdata. 2022.2.16. Lithuania starts consultations for a 700MW offshore wind plant in the Baltic Sea

상회하는 1.55억유로로 최초 결성되었다고 밝힘[18)]

- (세부내용) 해당 펀드는 폐쇄형펀드*로,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기금 등 7개 투자자들의 출자를 받아 최대한도인 4.5억유로의 3분의 1이 현재 조성 완료된 상태[19)]. 펀드의 60%는 유럽 주요 데이터센터 시장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에 사용되고, 나머지 40%는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에 사용될 예정

  * 폐쇄형펀드: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어 투자자가 중도 환매청구를 자유로이 할 수 없는 펀드 (개방형펀드의 반대개념)

- (시사점) 코로나19를 겪으며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펀드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음. 이에 건설사들이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글로벌 투자회사들과 협업함으로써 디지털 인프라 디벨로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한다면 미래 성장의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8) InfraPPP. 2022.3.2. First Close achieved for Principal European Data Centre Fund
19) Data Center Dyanmics. 2022.2.23. Principal Global Investors close €155 million European data center fund